

洪錫律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論文

中・高等學校 國史 國定教科書

現代史 敘述의 內容 變化 分析

- 1次 ~ 7次 教育課程 -

2005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鄭惠榮

中・高等學校 國史 國定教科書
現代史 敘述의 內容 變化 分析

- 1次 ~ 7次 教育課程 -

洪錫律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4년 11월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教育學科 歷史教育專攻

鄭惠榮

認 准 書

鄭惠榮의 碩士學位 論文으로 認准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誠信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논문개요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모두 8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1945년부터 3년간 존재했던 미군정기에 제정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모두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다. 교육과정때마다 교과서의 서술 내용도 변화하였는데 내용이 시기마다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사의 내용 변화가 가장 심각한데 이는 교과서가 국가목표의 달성이나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데 연유한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교과서가 국정제가 아닌 자율제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국사교육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유신체제 이후의 군부 정권시대와 민주화 수립 이후의 국사교육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권과 국사 교육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의 서술내용은 간략히 서술하였으며, 1차부터 6차까지는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내용 변화를, 7차 교과서는 『한국 근·현대사』가 검정체제로 개편되어 선택교과로 되었으므로 중학교 국사 국정교과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가장 내용의 변화가 많았던 현대사 부문으로, 해방 이후 민족분단에서부터 이승만 독재정권 시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정권시기를 살펴보았다.

교과서에서 현대사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를 적극 반영하여 서술되어야 한다. 현행과 같이 단일한 국정 교과서 체제내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획일화된

사고를 주입하기가 쉽다. 최근 들어 국사교과서의 여러 곳에서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사 교과서의 한 종류를 구성하는 11~12학년의 『한국 근·현대사』가 국사 교과서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정의 틀을 벗고 김정체로 바뀐 것은 언제나 국정체제를 고수해 온 국사 과목으로 볼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교사만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은 미래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고도 끌어낼 수 없다. 계속해서 국정 체제를 고집한다면 학생들은 제한적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편협한 시야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재 국사 국정교과서에서 자율 발행제, 또는 검인정 체제로 전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국사 교육과 교과서 정책의 추이와 현대사 교육	4
1. 1950, 60년대 국사교육의 형성	4
1) 1, 2차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1954~1974)	4
2) 검정 교과서	6
2. 유신체제 이후 국사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8
1) 3차~5차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1974~1996)	8
2) 국정(1종) 교과서	10
3. 민주화 이행기후의 국사교육의 변화	12
1) 6차~7차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1996~)	12
2) 검인정 교과서	14
III. 국정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	16
1.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16
1)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16
2)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과정	20
2. 이승만 정권과 ‘4월 혁명’	23
3. 민주당 정권의 평가	27
4. 군사독재정권의 평가	28
1) 박정희 정권	28
2) 전두환 정권	34
3) 노태우 정권	36
VI. 결 론	39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4
<표 2>	16
<표 3>	20
<표 4>	24
<표 5>	27
<표 6>	29
<표 7>	34
<표 8>	36

I. 서론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모두 8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1945년부터 3년간 존재했던 미군정기에 제정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모두 7차에 걸친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교과서가 개발되었다.¹⁾ 좋게 해석하면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가 건설에 필요한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교육이 부응해 왔다고 여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적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은 사회과 교과서이며, 그 중에서도 국사교과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살펴보면, 각 교육과정의 내용이 시기마다 일치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사의 내용 변화가 가장 심각한데 이는 교과서가 국가목표의 달성이나 정권의 정당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데 연유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장기간 군부정권이 유지되었던 만큼 현대사 부문이 상당부분 축소되었거나 정권을 정당화시킨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국사 교과서의 왜곡은 국정교과서 체제로 묶여 있음으로 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정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교과서가 국정제가 아닌 자율제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1) 정선영,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향」, 『교육논총』 제23권 3호, 2002, 185쪽.

2) 김한중, 「해방 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5호, 1991, 81쪽.

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제에 대해서는 1974년 제3차 교육과정 때부터 강력한 비판이 있었다. 1974년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발행된 직후부터 학계나 교사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하였다. 역사교육의 원론적인 측면에서 문제삼기도 하였고, 교과서에 관철되고 있는 시각이나 관점을 비판하기도 했으며, 교과서에 실린 구체적인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국정제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비판하는 중심 내용은 시기에 따라 많은 변천이 있었다. 국정 초기에는 원론적인 측면과 교과서의 오류에 대한 지적이 많았으며,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에는 교과서의 시각 및 관점이 집중적으로 문제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 최근에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졌다.³⁾

역사교육론의 시각에서도 국정 발행제가 문제라고 비판하였다. 단일종의 교과서이기에 교사는 충실한 해설자가 되어 교수활동이 고정화되어, 창의적 노력과 학문적 정열이 상실된 교수활동을 하는 데 머물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역사 해석만이 있게 된다는 것, 입시제도 속에서 교과서 내용에서만 출제함으로써 역사지식의 한정과 고정을 가져온다는 것도 비판 사항이었다. 결국 단일종의 교과서는 현장의 역사교육에서 경전으로 군림함으로써 많은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⁴⁾

교과서의 서술 내용 및 시각에서 특히 현대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주장이 제기되었다. 현대사 전반에 걸쳐 분단 국가주의가 과잉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정부·관 중심으로 서술한 것, 민족 등의 용어를 과다 사용한 것, 극우권위주의 정권을 미화한 것, 반공이테올로기가 강조된 것, 서술의 불균형이 심한 것 등이 지적되었다. 그 결과

3) 이현희, 「국사교과서 국정체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2004, 88쪽.

4) 이원순 외, 『역사교육론』, 삼영사, 1980, 256~258쪽; ; 이현희, 위 논문, 2004, 89쪽.

국민 또는 민중·민간인들의 행위나 활동을 찾기 어려우며, 여러 사회 계층이나 사회 단체의 움직임이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진보적인 정치세력의 활동, 학생운동·재야운동·사회운동도 제대로 언급되지 못하였고, 의회정치·정당정치·선거행위도 조금밖에 서술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나 북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사실의 왜곡이나 오류, 기술이 누락된 것도 허다하다고 비판하였다.⁵⁾ 현대사 서술에 대해 전면적인 비판을 한 것은 이전에는 없던 바로서, 사회적으로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학계에서 연구 성과가 축적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대사 서술 내용을 1차 교과개정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추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용어의 변화나 서술내용의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 역사적 사실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왜 그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변화 양상의 추이를 되짚어 봄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5) 신병철, 「권력의 홍보물 국정 국사 교과서 - 국정 국사 교과서 현대 부분 분석 - 」, 『교과연구』 7, 통일시대교육연구소, 1996. ; 서중석,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역사비평』 56, 2001.

Ⅱ. 국사교육과 교과서 정책의 추이

우리나라의 교과서 개편은 집권 정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추진되었다. 이는 국사 교과서가 국정이었던 점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국사교육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유신체제 이후의 군부 정권시대와 민주화 수립 이후의 국사교육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정권과 국사교육 간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 이것이 어떻게 교과서에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권력 집단의 변천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편

각 시기별 교육과정기	1차과정기 (1954-1963)	2차과정기 (1964-1974)	3차과정기 (1974-1981)	4차과정기 (1981-1987)	5차과정기 (1988-1996)	6차과정기 (1996-2001)	7차과정기 (2002-현재)
권력 집단의 변천	이승만 정부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정치적 변화	1950년 6·25전쟁	1961년 5·16 군사정변	1972년 10월유신	1980년 신군부 집권	1987년 6월항쟁	1992년 민정이양	
교과서 개편의 시기			1974, 79년	1982년	1990년	1996년	

1. 50, 60년대 국사교육의 형성

1) 1차, 2차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

(1차 : 1954~1963, 2차 : 1964~1974)

1948년 정부 수립 후 교육관련 법과 규정들이 정비되었다. 1949년에는 교육법이 공포되었으며, 이어 교육과정의 제정이 추진되었다. 국사는 사회생

활과의 한 과목으로 편제되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때에 국사교육의 특징을 교육과정의 지도 목표에서 찾아보면 대체로 국난극복사를 통한 애국심 함양, 우리 민족문화의 전통 발굴을 통한 민족애 육성 등에 두고 있다.⁶⁾

제1차 교육과정은 편제상으로 교과중심 교육과정의 틀을 따랐다. 지적 체계를 강조하는 철저한 분과주의 형태를 취하여 교과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고, 교과에 속하는 각 과목간의 진술 체계도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교과 내용상으로는 미국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받아 생활중심 교육과정을 지향하였다.

1950년대 후반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교육 과정의 개선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의 개정이 추진되었다. 한편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은 1960년의 4월혁명과 1961년의 5·16쿠데타 이후 전개된 정치·사회상황에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의도도 작용하였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1963년 2월에 공포된 제2차 교육과정이다. 제2차 교육과정은 경험중심(생활중심)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체제를 통일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수업 시수로는 단위수가 사용되었는데, 이 때 역사과목의 단위수는 국사 6단위, 세계사 6단위로 사회과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⁷⁾ 이 시기 역사교육의 내용에도 당시 정부의 이념과 정책이 반영되었다. 애국애족과 반공민주국가, 국제협조, 민족정신과 민족문화, 경제발전 등이 사회과나 역사교육의 목표로 내세워졌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 민족적 자각과 단합을 강조하였다.

제2차 교육과정 역사과목의 내용구성에서 두드러진 점은 역사를 비교사

6) 윤종영, 「근현대사 교육과 교육과정」, 『문교행정』 52, 1986, 75쪽.

7)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285쪽.

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 편성은 폭넓은 역사 성찰을 통해 역사의식과 역사적 판단 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세계사를 단순한 연대사적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역사 전개 순에 맞추어 배열하였기 때문에 역사의 구조적 특징이나 사회적 성격을 비교하고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 채, 오히려 역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⁸⁾

2) 검정교과서

교육과정의 공포에 따라 1955년부터 교과서가 편찬, 발행되었고,⁹⁾ 국정과 검정을 정규교과로 하고 인정을 보조 교과서로 하는 교과서제도가 시행되었다.

문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검인정 내용 사열기준은 교육목표의 달성, 내용의 선택 및 배열, 사상의 선도, 내용의 정확·명료성, 실제 지도의 적합성 여부, 보편적 학설의 취급, 삽화·도표·목차·색인·부록 등의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총 17개 항목이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서 사열의 기준은 지극히 추상적인 어휘로 되어 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검인정권자의 자의적 해석이 들어갈 소지가 많은 것이었다. 또한 역사라는 과목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열의 원칙을 나열한 데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은 2차 교육과정 때 시행된 교과서 검정에서 각 교과마다 교과서의 종수를 제한하고, 검정제도를 강화하는 교과서 정책의 역행을 가져온다.

이 당시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사와 세계사를 서로 밀접하게 연관

8) 양호환 외, 위의 책, 286쪽

9) 김영주, 「국정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1995, 20쪽.

지어 학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중학교 역사교과서(사회2)에서 국사와 세계사를 종합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체계는 고대사회의 일반성을 현대에 와서는 세계를 하나로 인식하자는 것으로 폭넓은 역사성찰과 역사적 판단능력의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세계사를 한국사의 전개순서에 맞추어 배열하여 단순히 합친 데 지나지 않아서 역사의 구조적 특징이나 각 사회의 성격을 비교하거나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또한 그 내용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대하여 충분히 연구검토하거나 현장실험을 하지 않은 채 시행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국사교과서 서술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교과서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이 작업은 학계나 교육계 내부의 사업이 아니라 정치적 조치로 시작되었다. 즉 1961년 10월 14일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었던 박정희가 국사내용의 통일을 지시함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하던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용어나 표기법의 통일이 시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내용 자체가 1차 교육과정 당시의 교과서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교과서의 서술은 여전히 왕조사를 중심으로 한 연대사적 서술이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의 학습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일반적인 한국사 개설서의 내용을 간추린 정도였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것은 현대사 부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부의 시책을 홍보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장차 개정될 교육과정과 국사교과서의 방향을 뚜렷이 짐작하게 해준다. 당시 교과서에 새로이 들어간 주요 정부시책은 월남파병,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국가비상사태선언, 남북대화 등이었으며, 5·16을 군사혁명으로 표현하던 것을 그냥 혁명이라고 부름으로써 합리화시키고자 하였다.

1969년 교육과정의 부분 개편 당시 나타난 국사교육 강화의 취지와 국사 및 세계사의 분리는 결과적으로 제3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사과를 사회과로부터 독립시키게 하였다.

2. 유신체제 이후의 국사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의 강화

1) 3차 ~ 5차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

(3차 : 1974~1981, 4차 : 1981~1987, 5차 : 1988~1996)

1973년에 8월에는 제3차 중학교 교육과정, 1974년 12월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제3차 교육과정은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으며, 국민교육헌장 이념의 구현을 표방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적 자질의 함양과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 표방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1972년 10월 유신 이후 제4공화국에서 내세웠던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고 국적있는 교육이 제창된 점이 제3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과목의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과목으로 사회과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 교과가 되었다는 점이다. 중학교 사회과는 지리, 세계사, 일반사회, 고등학교 사회과는 국토지리, 인문지리, 세계사, 정치·경제, 사회·문화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역사교육은 국사과의 국사교육과 사회과 안의 세계사교육으로 이원화되었다. 한편 고등학교의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바뀐에 따라 세계사 교육의 약화를 초래하였다.¹⁰⁾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인 1981년 12월 제4차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달리 특정 교육과정 이념이나 사조가 아닌 종합적·복합적 성격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을 표방하였다.

10) 양호환 외, 위의 책, 287~288쪽.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이념을 수용하되, 종전의 교과중심·경험중심·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이념도 포함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유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교육은 국사과와 사회과 속의 세계사 교육이라는 이원적인 체제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중학교 사회에서는 사회과 통합의 움직임이 강화되어 한 학년에 두 영역의 내용을 다루는 것으로 단원편성이 바뀌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의 개정은 2개 이상의 사회과 영역을 서로 연관시켜 학습한다는 취지였으나 실제로는 단원에 따라 내용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학년별 단원편제도 뚜렷한 이론적 근거나 교육적 고려없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회과 통합이 과연 중등학교 사회과 교육에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었으며, 이러한 논란은 이후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반복되었으나, 사회과 통합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역사교육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1980년대 중반에 접어들어 사회 전반에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역사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근·현대사 서술은 이들 비판의 초점이 되었다. 해방 이후의 현대사 내용은 정권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정부의 시책이나 성과를 두드러지게 홍보하고, 반공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주입하고 있다는 것과 한말·일제통치기의 경우 서구식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부르주아 민족운동을 역사의 주류로, 일제하 농민·노동운동과 같은 민중운동을 배제하거나 보조적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내용이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이 의도한대로

교육적 성취를 가져오도록 하는 제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하였으며, 고등학교에서는 학교장의 운영재량권을 강화하였다.¹¹⁾

2) 국정(1종) 국사교과서

3차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교과서제도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 가장 큰 특징은 중·고등학교 정책교과(사회, 국사, 도덕) 교과서의 국정화 또는 단일화였다.¹²⁾ 이러한 교과서의 단일화는 반대하는 여론을 형성하였으며 국사교육 강화위원회 내부에서조차 반대의견이 많았다. 당시 학계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반대하였던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복수의 교과서 발행이 허용되어야 보다 우수한 교과서가 서술, 생산될 수 있다.

둘째, 교과서가 여러 가지여야 자기의 역사관을 살릴 수 있는 교과서를 택할 수 있다.

셋째,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단일 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역사 지식의 한정과 고정을 초래할 것이다.

넷째, 역사해석의 무비판적 수용과 다양한 소재에 대한 무감각으로 민족적 주체의식이 조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교를 막론하고 국사교과서는 국정화되었다. 문교부는 이러한 교과서 단일화안을 채택하면서 그 필요성을

11) 양호환 외, 위의 책, 292~293쪽.

12) 김한중, 「해방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5, 1991, 75쪽,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첫째, 교재내용의 조속한 개편(국가 체제의 강화와 사회정세의 급변에 대처)
- 둘째, 학습 및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셋째, 학력 평가시의 공동출제 가능
- 넷째, 의무교육화하는 중학교육에 부응
- 다섯째, 차기 검정시에 표본적 역할
- 여섯째, 물자절약에 기여(교본 사용의 폭이 증대하여 용지, 제작비 및 인건비 절약)

문교부의 주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과서의 국정 또는 단일화는 교육의 본질적 목적보다는 정부의 시책을 교육에 효율적으로 반영하려는 정치적 목적과 단순한 행정업무상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교과서 국정화의 목적은 후에 국정교과서가 정권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원인이 된다.

한편 교과서의 국정화와 더불어 진행된 사회과 등 일부 과목 검인정 교과서의 단일화 정책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과도적 행정조치였다. 단일화 정책은 기존의 검정교과서 저작자 및 발행자에게 계속적인 특권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였으므로 학계나 단일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판사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검인정 파동’으로 귀결되었다. 파동을 겪으면서 새로운 교과서 편찬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것이 국정·검인정 교과서부터 1종·2종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이었다.¹³⁾

1종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는데 여기에서 제시한 연구개발형 교과서 개발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13) 김한중, 위의 논문, 75~77쪽.

첫째, 교과서 개발과정의 타당도, 신뢰도, 합리성을 최대한으로 고양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김인정 교과서제도에 의한 채택경쟁의 치열화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셋째, 합리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종 국사교과서의 연구·저술은 주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1종 국사교과서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로 저술되었다고는 하나 문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심의하는 이상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국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이에 1종 위주의 교과서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대두되었다. 교육과정은 지침이고 교과서는 자유롭게 편찬, 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1979년 만들어진 교과서제도의 근간은 이후 제4차 교육과정과 제5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¹⁴⁾

3. 민주화 이행기 수립 후의 국사교육의 변화

1) 6차, 7차 교육과정 개편과 국사교육

(6차 : 1996~2001, 7차 : 2002~)

1992년 6월과 10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은 제5차 교육과정에 비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14) 김한중, 위의 논문, 78~79쪽.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내세웠다.

역사교육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제3차 교육과정부터 독립교과로 유지되어 오던 국사과가 폐지되어 교육과정 편제상으로 사회과 속에 통합되었으며, 국사과와 사회과 속의 세계사라는 이원적인 역사교육 체제로부터 사회과 속의 국사와 세계사라는 일원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국사과의 사회과 환원 및 사회과 통합 강화의 움직임은 역사교육의 약화로 이어져 역사학이나 역사교육계의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국 국사를 필수과목으로 하는 대신, 고등학교의 공통사회는 다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상권은 일반사회, 하권은 한국지리 내용을 담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¹⁵⁾

1997년 12월 고시되고, 2000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외형적 체제에서 이전에 비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우선 초, 중, 고등학교 학교급별 교육과정을 없애고, 초등학교 1학년 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크게 1학년(초등학교 1학년)~10학년(고등학교 1학년)의 국민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11, 12학년(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과정으로 나누었다. 1, 2학년은 통합적인 과정으로 구성하였으며, 3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10개의 국민공통 기본교과를 두고, 매학년마다 1개 교과당 1과목씩 10개 과목을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것도 이전의 교육과정과 두드러진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중심의 교육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전반적인 방향이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서만 다룸으로써 오히려 경쟁과 교육적

15) 양호환 외, 위의 책, 295~296쪽.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은 대표적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계열화의 방안으로 고등학교 국사는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분류사적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전근대사 중심의 교과내용 구성은 기형적인 교수요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만약 학교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2,3학년 심화선택과정에서 한국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현대사 교육의 강화라는 교육과정 구성의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고등학교에서 사실상 한국근대사와 현대사를 아예 배우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¹⁶⁾

2) 검인정 교과서(군부에서 민정으로 이양)

1993년은 군부에서 권력을 민정으로 이양되었음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등장한 김영삼 정부가 문민 정부를 표방하면서 권력 집단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하지만 ‘국제화’, ‘세계화’의 국정을 표방하면서도 국사 교과서 정책에 있어서 국정형식의 유지에는 다른 권력 집단들과 비교해서 별반 다르지 않았다. 김영삼 정부 또한 자신들의 권력 집권에 대한 정당성과 지배정책의 합리화를 위해 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유지한 채, 국사 교과서의 개편을 단행했던 것이다.¹⁷⁾

다음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교과서 상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되었다.

- ①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교과서
- ② 수준별 차이를 반영하는 교과서

16) 양호환 외, 위의 책, 298~301쪽.

17) 정연호,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이데올로기 분석-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0, 12쪽

③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

④ 학습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연결시키는 교과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현실적으로 개별 교과와 교수·학습 과정을 이끌어 가는 교육 내용과 방법의 상징체로서,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 시켜 놓은 공식적인 자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교과서 체제는 교육 과정에 종속되게 된다. 이 점은 국사 교과서 같은 국정 도서는 말할 것도 없고 검인정도서도 마찬가지이다.¹⁸⁾

『한국근·현대사』 교과서는 국정인 ‘국사’ 교과서와는 달리 새로운 교육 과정에 맞추어 검정으로 전환되어 발행되었다. 그럼에도 준거안과 교육과정이 국정에 의거해 서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종류만 많아졌을 뿐이지 사실 교과서 집필과 제작 과정은 국정과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서술 방식에 있어 약간의 융통성이 더 있을 뿐이다.¹⁹⁾

18) 이창성,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3, 9쪽.

19) 이창성, 위의 논문, 10쪽.

Ⅲ. 국정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

이 장에서는 국사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현대사 부문의 서술내용을 1차에서부터 7차까지 비교·분석해 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자 한다. 1차부터 6차까지는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를, 7차교과서는 교육과정에 의해 검인정체제로 바뀌어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가 선택과목으로 되었기에 고등학교 국사 국정 교과서에는 현대사 서술 부문이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제7차 교과서 현대사 서술 부문은 중학교 국사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여 비교해 보았다.²⁰⁾

1.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1)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

<표 2> 민족분단의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1차	①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이병도, 일조각(1961)	해방이 되자, 38°선이 그어져 남북이 갈리어지면서 민족의 비극이 일어났다. 북은 소련 세력권에 들고 남은 미 군정이 실시되었다.
2차	② 인문계 고등학교국사 이홍직 동아출판사 (1970)	그리고 점령지역에는 제 각기의 군정이 실시되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신탁통치를 지지하였다. 1947년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가 상정되고 유엔의 감시 밑에 총선거 실시되었다.

20) 내용면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일부분 생략하였고, 새롭게 첨가된 부문만 기재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중 1979년에 교과서가 한번 개편되었으나, 1974년편과 서술내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생략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3차	③ 인문계 고등학교국사 문교부 (1976)	연합국은 알타회담에서 38°선의 군사 경계선을 합의하고 남·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기 진주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회의에서 한국의 5개년 신탁 통치안을 결의하였다. 이에 우리 민족은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산주의자들까지도 처음에는 반탁운동에 참가하였으나 중도에 돌변하여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였다.
4차	④ 고등학교국사 (상)(하)국사편 찬위원회 문교부 (1982)	연합군은 군사 경계선에 대해 합의하고 38°선 남북에 미군과 소련군이 각기 진주하였다. 모스크바에서 열린 3국 외상회의에서 한반도에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결정하였다.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하고, 유엔 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선거를 실시하였다.
5차	⑤ 고등학교국사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1990)	38°선 남북에 각기 군대를 진주시켰다. 미 군정하에서의 남한은 새로운 정치를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3국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실시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신탁 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이승만 등은 유엔의 결의를 지지하며 선거가 실시되었다.
6차	⑥ 고등학교국사 (상)(하) 국사편찬위원회 교육부 (1996)	미 군정청은 우리나라에 새로운 서양의 정치 제도와 사상, 문화를 도입, 민주주의 정치 질서와 제도, 서양의 과학 정신, 개인주의적 사고 방식 등이 들어오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진주로, 자주적으로 독립 국가를 수립하려던 민족주의 인사들의 활동이 금지되었다. 남한에서만 선거가 실시되었다.
7차	⑦ 중학교 1종 도서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2002)	1948년 8월, 소련군의 북한 진주에 이어 미군도 9월 초 남한에 진주하여, 남아 있던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하였다. 38도선은 이처럼 처음에는 미·소 양국에 의해 그어진 단순한 군사적인 경계선이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대립이 심해지고, 두 진영 사이의 관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의 대립이 심해지고, 두 진영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38도선은 점차 정치적인 분할선으로 바뀌어 갔다. 남한에 진주한 미국군은 3년간 군정을 실시하였다. 광복 후 독립 정부의 수립을 고대하던 우리 민족은 신탁 통치의 결정을 민족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미·소 공동 위원회가 결렬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고, 이에 유엔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정부를 세울 것을 결의하였다.

미군정기의 대표적 이슈였던 38도선 설정에 관한 내용을 보면 1, 2차 교과서에는 38도선 설정 이유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3차 교과서에서는 알타 밀약을 분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그리고 4, 5차 교과서에서는 알타 밀약설을 근거로 한 서술은 사라지고 없지만 남북 분단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는 것은 이전 판과 다르지 않다. 6차 교과서에서는 38도선 설정이후 미 군정청의 주둔이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상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분단’이 당시 소련에 비하여 한반도 내에서 불리했던 미국이 전략상 요충지인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38도선을 소련에 제안했고, 한반도라는 주변 지역에서의 갈등을 피하여 2차대전 후 세계 재편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자 한 소련이 이 제안을 수용하여 확정되었음을²¹⁾ 분명히 하지 않았다. 단지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38도선을 분할 점령함으로써 ‘민족의 분단’이 이뤄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 진주를 분단의 원인으로 들고 있지만, 미군과 소련군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서술이 빠져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의 국제정세를 통해 우리나라의 분단원인을 서술하고자 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²²⁾

38도선 설정은 소련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확대됨에 따라 미국이 38도선을 제안하고 소련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진주하게 되었다. 이 38도선은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설정되었다.

신탁통치안에 대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1차 교과서에는 언급이 없고, 2

21) 박태균, 「미·소의 분할점령과 군정」,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562쪽.

22) 추승희,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현대정치사 서술에 대한 연구 : 1종 국사교과서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2003, 24쪽.

차 교과서는 북한이 소련의 지령에 따라 신탁을 지지하고 반탁운동을 방해하였다고 서술하였다. 3, 4, 5, 6차 교과서에서는 소련의 사주를 받아 좌익계의 태도가 돌변하여 찬탁을 주장하였다고 서술하였고, 7차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반탁을 반민족적인 행위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교과서에서는 소련이 반탁을 하다가 찬탁을 하게 된 이유를 ‘소련의 지령 때문에’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령 때문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탁통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론적 찬반논쟁이 아니라 신탁통치는 누가, 무슨 의도로 제안하였으며, 그 이후의 찬·반탁의 논쟁은 어떤 과정을 겪고, 민족사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에 의거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핵심적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선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창건하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조직한 후 공위가 임시정부와 협의 하에 신탁통치를 실행하여, 양국 사령부는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회합한다는 것이었다.²³⁾ 그러나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친일지주·자본가 등의 한민당은 임시정부에 대한 언급없이 ‘4개국 신탁통치안’ 이라고 단순화하여 선전함으로써 대중적인 지지를 일정하게 확보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찬탁·반탁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사대·애국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뒤이어 진행되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실패도 미, 소 어느 일방의 책임으로 단순화하기는 어렵다.²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차 교과서에는 여전히 미군정을 옹호하고 소군정을 비난하고 있다. 좀더 균형있는 서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까지 살펴본 <민족분단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교과서 내용은 아직

23)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6, 226~227쪽.

24)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권, 청사, 1986, 56~95쪽.

까지도 우리 현대사의 근원적인 모순을 일으키게 한 분단에 대해서, 그리고 신탁통치에 대해서 당시의 국제 정세와 국제 관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형태로 서술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교과서에서는 과정과 결과만이 서술되어 있음으로 해서 그 원인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다 하겠다. 역사인식에 있어서 원인과 배경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력을 결과에만 치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비판적 사고력이 요하는 현재에 있어서 이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하겠다.

2) 한국전쟁의 발발 원인과 과정

1945년 이후의 한국현대사에 있어서 민족공동체적 운명에 가장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역사적 계기인 한국전쟁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살펴봄으로써 발발원인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3> 6·25전쟁의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1차	①	6·25사변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의 후진성에서 오는 여러 가지 모순과 혼란을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남북의 군사적 대립만이 아닌 온 세계의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의 대결에서 나온 파동이 우리에게 미친 것이다
2차	②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공산군은 남침을 시작하였고, 밀고 밀리는 전투 속에 1953년 7월에 휴전이 성립되고 3년간의 전토가 종결되었다.
3차	③	북한은 6·25 직전까지 20여만의 중무장한 군대를 편성하는 한편, 남한의 공산주의자를 사주해 제주도에서 폭동과 여수,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순천에서의 반란을 일으켰다.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4차	④	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된다는 등 미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고무되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일제히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법적인 남침을 개시하였다.
5차	⑤	그들은 제주도 4·3사건, 여수, 순천 반란 사건등을 일으켰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일제히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침개시하였다. 공산군측은 유엔의 소련 대표를 통해 휴전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는 휴전으로 국토 분단이 영구화될 것을 염려해 휴전 반대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휴전 성립되었다.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앞으로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상호 협조하고 대항할 수 있는 공동의 준비를 해나갔다.
6차	⑥	한반도에 진주해 있던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전투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공산군측은 소련의 유엔 대표를 통해 휴전 제의하였으나 우리 정부와 국민은 일단 휴전하면 민족 분단이 영구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 유엔군과 공산군 사이에 휴전이 성립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화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생존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발전의 의지를 심어 주었다. 사회적으로는 격심한 인구 이동으로 가족 제도와 촌락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문화적으로는 서구의 문화가 무분별하게 침투되어 우리의 전통 문화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끼쳤다.
7차	⑦	1946년 2월에는 사실상의 공산 정권인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북한 공산 정권은 소련과 비밀 군사 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한편,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남침을 준비하였다. 북한이 남침하여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다가 휴전 회담이 성립되어 휴전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은 자유와 평화에 대한 도전이었다. 남북한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적대 감정이 팽배하게 되었고, 그 결과 평화적인 통일보다는 대결의 국면으로 치닫는 민족의 비극이 확대되었다.

6·25전쟁에 대한 각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보면 6·25란 명칭이 각기 다르

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 2차 교과서와 1979년 개정된 3차 교과서에서는 ‘6·25 사변’, 1974년 개정 전 3차 교과서에서는 ‘6·25의 민족 시련’이라는 소제목으로 뚜렷한 명칭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4차 교과서에서는 ‘6·25 남침’, 5, 6, 7차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3차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원인을 공산주의 국가의 후원과 북한 공산군의 도발로 시작되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회복되었고, 중공군의 개입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뒤 휴전제로 휴전은 성립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으며, 이는 6차 교과서까지 단락을 구성하여 왔다. 6차 교과서에서는 이전 교과서보다 상세하게 한국전쟁에 관해 기술하고 있으며, 6, 7차 교과서에서는 이전의 교과서보다는 6·25전쟁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서술하여 이해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다.²⁵⁾ 더불어 7차 교과서에서는 발발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서술하였다.

한국전쟁은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해방 5년사의 총괄이자 세계적으로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체제로 현상화되어 오던 체제간 모순의 폭발적 발현이었다. 한국전쟁은 현대 세계사의 가장 핵심적인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²⁶⁾ 교과서에서는 미·소군정 기간 및 분단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한 정권이 서로 대립과 반목을 심화시켜 온 데서 비롯되고, 아울러 이 무렵 국제적으로 냉전이 격화되고, 1949년 10월 공산 정권이 중국 대륙을 장악하게 된 것과 같은 발발 원인에 대해서 서술이 없거나, 매우 미비하다. 교과서에서는 전쟁의 결과로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을 서술

25) 정경희, 위의 논문, 23쪽.

26) 최봉대,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 성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한국전쟁연구』 최장집 편, 태암, 1990, 16쪽.

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점인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한 간의 이질화의 확대, 전쟁 중에 심화된 적대감은 그 후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강화되었다는 점 등을 서술하지 않음으로써 이념적인 문제의 부각을 축소시켰다.

한국전쟁은 그 발발 원인과 배경, 성격과 의미 등 숱한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난 원인과 배경, 전쟁 중의 점령 정책, 휴전협정 체결의 경위 및 전쟁 포로 문제, 전쟁 기간 중 남·북한의 정치사정 변화, UN군과 중국 공산군의 참전 경위와 그에 대한 평가, 전쟁의 결과에 대한 평가 문제 등은 논의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남·북한 정부를 비롯하여 각 논자들이 각기 자기의 관점과 처한 입장에 따라 전쟁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⁷⁾ 그러나 아무리 이러한 논란이 많은 문제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정확한 사실과 배경, 과정, 결과를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국전쟁이 단지 공산주의자들의 야욕 때문이 아니라 분단의 고착화를 타파하고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한 민족적 노력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술되어야 할 것이다.

2. 이승만 정권과 ‘4월 혁명’

1950년대는 흔히 정치의 암흑기로 불린다. 대통령 이승만이 정치 권력을 마치 자기 개인의 물건처럼 여기며 주로 경찰이나 폭력 집단의 힘에 의지하여 장기 독재를 꾀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깊어졌다. 더구나 1950년대 말에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 미국의 원조 감소에 따른 재정 위기, 조세 부담의 가중, 저곡가 정책 시행 등으로 경제 사정도 한층 어려워져 사회의 불안이 갈수록 높아졌던 시기이다.²⁸⁾ 그러던 차에 치루어졌던 부정

27) 류승렬,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현대, 서울, 2003, 348쪽.

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들이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평가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 이승만 정권과 4·19혁명의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2차	②	대통령 이승만의 독재화 경향이 강해지고 3선 목적으로 한 개 헌안이 통과되고, 2·4파동 일어났다. 4·19의거는 이승만 정부의 퇴각을 외친 것으로 민중의 독재정권 타도에 성공한 한국사상 최초의 의거였으며 주역은 학생이었다.
3차	③	이승만 대통령은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정치파동을 일으켜 국회를 탄압하고 발췌개헌안을 통과해 변칙헌법을 만들고 야당탄압과 2·4파동으로 4선과 자유당의 독재정치체제를 확립하였다. 학생들의 4월 의거로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고 이승만 박사는 물러났다.
4차	④	전란 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세력을 막고 반공 포로를 석방하는 등 과감한 반공정책을 폈다. 국민들은 4월의거를 일으키고 이로써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5차	⑤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제일주의 노선 견지하고, 적극 외교를 전개하였다. 계엄령 선포 하에 국회탄압하고, 발췌개헌안 통과시키고 장기집권위해 사시오입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시민들이 독재 정권타도와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4·19의거를 일으켜, 자유당 정권도 계엄령을 선포해 정권유지하려 했으나 학생·시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자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6차	⑥	헌법개정(사시오입 개헌)을 했으며 이로써 독재정치 강화되고 부정부패가 심화되었다. 자유당 독재 정권의 타도를 위해 4·19 혁명 일어났다. 이는 3·15 선거당일에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마산의거에서 비롯되었다. 4·19혁명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혁명으로서 민족의 민주역량을 전세계에 보여준 것이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새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28) 류승렬, 위 책, 363쪽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7차	⑦	집권 여당인 자유당은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무리하게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 선거를 실시하였다. 1960년 3월의 자유당은 대대적인 부정 선거를 감행하여 정권을 연장하려 하자, 이에 학생과 시민들은 쫓겨, 마침내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으며, 자유당 정권도 무너졌다. 4·19 혁명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일으킨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며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만 정부에 관한 각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보면, 2, 3차 교과서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되어 있다. 4, 5, 6, 7차 교과서에서는 비판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업적(반공포로 석방, 미국 등 우방국가와의 적국외교 등)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4·19에 관한 내용에서는 2, 5차 교과서에서는 ‘4·19의거’ 로, 3차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4월 학생 의거’ 로, 3차 개정 후 교과서와 4차 교과서에서는 ‘4월 의거’ 로, 6, 7차 교과서에서는 ‘4·19 혁명’ 으로 표시하고 있다.²⁹⁾ 교육부의 6차 교육 과정 국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 4·19 의거로 되어 있는 것을 혁명이라 한 것은 혁명의 개념으로 볼 때 논리적 비약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8·15 광복 이후 우리나라 역사의 발전 과정을 정치적 측면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으로 볼 때 4·19 혁명은 비록 ‘미완성의 혁명’ 이지만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한 역사의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혁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4·19 혁명으로 확정하였다고 하였다.³⁰⁾

29) 정경희, 위의 논문, 25쪽.

30) 교육부, 「국사 교육 내용 전개의 준거안 연구 및 확정 경위」, 『교과서연구』 26, 『한국 2중 교과서협회편』, 동협회, 1996, 114~116쪽.

3차 개정 전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선거에 분노한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켜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 라고 하여 ‘4월 학생 의거’ 제목이 보이는 것처럼 의거의 주체를 학생으로 국한하고 있다. 반면 3차 개정 후 교과서에서는 ‘4월 의거’ 로 바꾸고 ‘학생들이 의거를 일으키고 국민들이 이에 호응하여...’ 하여 라고 의거의 주체에 국민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폭넓은 4.19 혁명에 대한 해석이라 하겠다. 4차 교과서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 사실을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 일당의 정부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함부로 어기는 처사와...” 라는 서술을 포함하고 있다. 5차 교과서에서는 4차 교과서에 비해 혁명 과정이 좀 더 상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마산의 부정 선거 규탄 시위와 자유당 정권이 의거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진상이 밝혀져 국민들의 항의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점, 4월 19일 당일의 항쟁과 진압 그리고 이승만의 사임 등이 포함되어 있다. 6차 교과서에서는 5차 교과서와 대부분 같은데 마지막 부분에 4.19 혁명의 의의를 되짚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서술한 점이 다르다.³¹⁾ 7차 교과서에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 혁명의 원인만 서술하고 전개과정에 관한 서술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또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항 역시 ‘계엄령을 선포하여 진압하고’ 라고 서술하여 시민들에게 총을 쏘았다는 내용이 빠져있다. 이는 국정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관 중심의 서술이라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³²⁾

31) 정연호,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 계명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36~37쪽.

32) 추승희, 위의 논문, 37쪽.

3. 민주당 정권의 평가

4·19 혁명 이후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고,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필 것이란 기대가 만발하였다. 이러한 기대 속에 들어선 장면 내각은 과연 어떠하였는지 1차에서부터 7차까지 살펴보고, 서술 내용의 변화를 추이해 보도록 하겠다.

<표 5> 민주당 정권시기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2차	②	4·19의거 결과 과도 내각이 성립되어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되어 민주당이 압승하였다. 장면내각은 통일문제를 뒤로하고 경제제1주의를 내걸고 출발하였으나, 분열된 여당은 자체결속이 어려워 허약성을 드러내었다.
3차	③	허정을 수반으로 한 과도정부가 구성되었다.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고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민주당 정부를 구성하였다. 집권초부터 신·구파의 파쟁을 일으킴으로써 민주당 정부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4차	④	제2공화국이 성립되었으나 집권 초부터 민주당 내의 신·구파가 파쟁을 일으켜 국민의 성원과 기대를 외면하였다. 민주당 정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북한 공산주의자에게 오관의 기회를 주는 중대 시국을 초래하였다.
5차	⑤	4·19의거후 허정을 내각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구성되고 의원내각제의 개헌이 이루어져 장면내각의 제2공화국이 수립되었다.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였지만, 9개월만에 박정희를 중심으로 군부가 5·16군사 혁명을 일으켜 제2공화국은 단명하였다.
6차	⑥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헌법을 개정해 총선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민주당이 압승,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장면을 국무총리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내의 심한 정치적 갈등으로 국정 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부 세력이 사회적 무질서를 구실로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

교육 과정	교과서	서 술 내 용
7차	⑦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 정권이 4·19혁명으로 무너지자, 과도 정부가 성립되어 사태를 수습하였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요 내용으로 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총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이 압도적 승리하였다. 장면 내각은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고 민주 정치를 실현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4·19혁명 직후의 사회적 혼란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 이는 장면 내각이 4·19혁명의 정신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분열로 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한데다가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함으로써 민주당 정권은 무너졌다.

민주당 정부에 대한 각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비교해 보면 2, 3, 4, 6, 7차 교과서에서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 무능하고 당내 분열로 사회질서마저 유지할 능력을 상실한 정부로서 기술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고, 5차 교과서에서는 민주당이 무능하긴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역시 다른 과정의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성과나 정책들에 관한 서술은 보이지 않는다. 또, 2차부터 7차까지 새로이 구성된 장면 내각이 성립된 것 외에 혁명 이후의 사회상에 관한 서술이 빠져 있어 다른 사실을 찾아낼 수 없다.

4. 군사독재정권의 평가

1) 박정희 정권

4·19 혁명 이후 민주주의와 민족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민간 차원의 남·북간 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일

부 장교들과 3,500여 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것으로 4·19 혁명의 결실인 민주당 정권은 9개월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20년 가까이 독재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거머쥐고 있었다. 이를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서술하고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해 보 고자 한다.

<표 6> 박정희 정권시기의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2차	②	박정희 장군의 영도아래 무혈혁명이 5월 16일에 일어났다. 정치, 사회의 혼란을 수습해 민주정치의 터전을 마련한 혁명정부는 일반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민정 복귀를 약속해 민주국가 재건을 다짐하였다. 혁명정부는 1962년 12월 우리나라최초의 국민투표로써 개헌을 단행하고 다음해 총선을 거쳐 제3공화국이 성립되었다. 혁명 주체세력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화당이 집권해 현재에 이르고 공화당 정부는 혁명정부가 추진하던 경제 계획을 그대로 계승해 조국의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한·일 국교를 타개하고 경제·외교면에서 새로운 전개가 있었으며 제2차 경제개발5개년을 진행하였다. 1964년부터 현재까지 베트남에 총 4만 7천의 병력을 파견, 침략격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3차	③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혁명군은 대한민국을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위협으로부터 구출하고 국민을 부정부패와 불안에서 해방시켜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61년 5월 16일 혁명을 감행하였다. 정권을 장악하였다. 혁명군은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 6개조의 혁명공약을 발표하였다. 군사혁명의 이념과 혁명정부의 정치는 제3공화국으로 계승되어 박정희 장군을 대통령으로 추대하였다.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시키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72년부터 추진하였다. 한·일 문제를 타결하고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지의 여러 나라와도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1964년에 자유 베트남에 국군 파견하였다. 농촌의 근대화를 위해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다. 1972년 7월, 7·4공동선언을 발표해 남북 대화를 개시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2년 10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헌법을 개정하고 10유신을 단행하였다.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4차	④	<p>중립국과의 외교관계 개선,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를 수립하였다. 1962년부터 추진해오던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 경제적 후진성을 극복하고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공산군과 싸우는 자유 베트남에 국군을 파견해 국제 협력에 동참하였다 정신 혁명과 국민의식 고취하고 농어촌의 근대화를 이루고자 1968년말 국민 교육헌장 제정, 공포하였다.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해 통일을 위한 노력 시도하였으나 정부는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을 개정하고 10월 유신을 단행하였다. 유신 후 제4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 징후가 나타나면서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10·26 사태 발생하였다.</p>
5차	⑤	<p>군부는 헌정을 중단하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 군정을 실시하였다. 경제재건과 행정능률 및 정치안정을 강조해 정치활동 정화법을 제정하고 구 정치인의 사회활동을 금지시켰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됨으로써 제3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제3공화국은 군사정부의 기본정책을 계승했고 야당과는 한·일 국교 문제에 있어 현실인식과 시국관에 차이가 있었다. 박정희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이는 능률을 극대화하고 국력을 집약한다는 명분아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변질시킨 권위주의 체제였으며 민주 헌정 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였다. 특히 대통령의 권한으로 좌우될 수 있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대통령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였다. 유신체제는 권위주의적 체제의 경직성과 각종 역기능이 심화되었다. 개헌 및 반정부 운동이 가열되어 외교관계가 악화되자, 정부는 대통령 긴급 조치를 선포해 반체제 운동에 강경하게 대처했으나 결국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체제하의 제4공화국은 막을 내렸다.</p>
6차	⑥	<p>군부는 즉각 헌정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 군정을 실시하였다. 반공을 국시로 천명하고 경제 재건과 사회 안정을 내걸고 정치 활동 정화법을 제정해 구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다. 국민들은 대일 굴욕 외교 반대에 부딪혀 6·3 시위를 유발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국제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정부는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헌법을 비롯해 각종 법령을 개정, 정비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구제를 바탕으로 하는 헌법에 의거해 국정을 운영하였다. 한·일 회담을 추진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꾀하였다.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는데 유신 체제는 권위주의 통치체제였다. 유신체제는 국가행정의 효율성은 강조했으나 권위주의적 경직성은 국민들의 정치의식과는 차이가 있어 지탱될 수 없었다. 국내에서는 민</p>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주헌정 회복과 개헌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를 동원하였다. 집권 세력 내부에서도 갈등이 생겨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태가 일어나 유신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7차	⑦	군사 정변의 주체 세력은 헌법의 효력을 중단시키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하여 2년 6개월 동안 군정을 실시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성장위주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근대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경제 성장과 국력배아에 기여하였으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의지는 약하였다. 1971년 4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렵게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이듬해 10월에 헌정을 중단시키고 유신을 선포하였다. 10월 유신이 선포되자,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유신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 많은 국민들이 동조하여 장기 집권이 어려워진 박정희 정부는, 긴급 조치를 발동하는 등 여러 가지 강경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는 10·26 사태가 발생하였다

박정희 정부에 대한 각 교과서의 서술 내용을 비교·분석해 보면, 우선 5·16 군사정변에 관한 용어는 2차 교과서에서는 ‘무혈혁명’, 3차 교과서에서는 ‘5·16 혁명’, 4차 교과서에서는 ‘5월 혁명’, 5차 교과서에서는 ‘5·16 군사혁명, 6, 7차 교과서에서는 ’ 군사정변 ‘이라고 서술되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혁명이란 명칭으로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박정희 군사정부의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면에서도 2, 3, 4차 교과서에서는 민주당의 무능으로 5·16 혁명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함으로써 내용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만을 서술하고 있다. 반면 5차 교과서에서는 군부가 5·16 군사 혁명을 일으킴으로써 제2공화국은 단명하였고 군정은 헌정을 중단시킴으로써 행해진 것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서술하고 있다. 6차 교과서에서도 일부 군부 세력이 군사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헌정을 중단시키고 군정을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비판적 관점으로 보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는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난 원인에 관해서는 장면 내각의 정책 실패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들어 기존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뒤이어 박정희 정부에 관한 내용에 관해 살펴보면 2, 3, 4차 교과서에서는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 정부가 행한 각종 정부 시책 및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위헌적 행위까지도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반면, 5, 6, 7차 교과서에서는 이런 시각에서 탈피해 당시 야당과의 갈등구조와 국제세계에서의 박정희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덧붙여 좀 더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다.

당시 국제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인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 한국군 파병에 대한 내용을 보면 2, 3, 4차 교과서에서는 국군 파병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제 협력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고, 5차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반면 6차 교과서에서는 베트남으로부터 미군이 철수된 사정과 결말에 대해서도 보충해서 서술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는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파견하였다’ 라고만 서술하고 있어 왜 우리나라의 장병들이 베트남으로 가서 싸워야만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월남 파병에 대해서 교과서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만 서술하고 있으나 사실 수많은 전투 병력이 파병되어 직접 전쟁에 참가하게 됨으로써 5천여 명의 병사들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죽거나 부상을 입는 등 많은 불상사가 초래되고, 또 최근에는 고엽제 피해자 문제, 베트남의 한국인 2세 문제, 민간인 살상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결과³³⁾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33) 류승렬, 위의 책, 382쪽.

하고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일 국교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면 2, 3, 4차 교과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으나 5차 교과서에서는 야당과의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하였고, 6차 교과서에서는 대일 굴욕외교 반대가 6·3시위를 유발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7차 교과서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개선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유신체제는 1960년대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재생산구조에 배태된 위기들, 즉 미국의 세계전략변화와 국제정세 변모의 결과인 반공안보 이데올로기의 위기와 분단구조의 이완, 독점체 중심의 종속적 자본축적구조의 내적 모순 표출에 의한 경제위기, 그간의 축적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사회세력들에 의한 계급갈등의 위기, 그리고 이러한 위기들의 정치적 위기로의 집약 속에서 기존의 종속적 재생산구조를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성립되었다.³⁴⁾ 교과서에 서술된 10월 유신에 대해서 살펴보면 3차 교과서에서는 10월 유신을 국제 정세에 애처하고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달성하고자 했다면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4, 5, 6, 7차 교과서에서는 10월 유신의 의도와 의미, 국내외의 반응,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체제 운동과 제4공화국의 결말인 10·26사태까지 서술하여 비교적 유신체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초법적인 긴급조치를 내리면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학생과 시민, 종교단체에게 얼마나 혹독한 탄압을 계속하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없고, 이러한 심각한 독재 정권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서술이 없어 학생들이 교과서를 볼 때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할 우려가 엿보인다.

34) 정관용, 「1960, 70년대의 정치구조와 유신체제」, 『한국사』 19, 한길사, 118쪽

2) 전두환 정권

10·26 사건으로 유신 독재의 주역인 박정희는 사라졌지만, 유신 체제가 청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이후의 정세가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박정희 정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전두환 정부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소개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표 7> 전두환 정부 내용 비교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4차	④	10·26사태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있었고 이런 혼란속에서 북한 공산군의 남침위기에서 벗어나고 국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한 뒤, 입법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부 수립하였다. 국민투표로 확정된 새 헌법에 따라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해 제5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5공화국은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과 민주 복지 국가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민족의 분단을 종식시키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제반 외교적 정책을 강력히 펴 나갔다.
5차	⑤	일부 군부 세력이 12·12사태를 일으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이를 전후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 개헌 작업 후 대통령 임기 7년의 단임제와 대통령 간접 선거를 골자로 헌법이 공포되고, 민주 정의당의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하는 제5공화국이 성립되었다. 제5공화국은 복지 사회의 건설, 정의 사회의 구현 등을 통치이념으로 내세우고 경제안정과 수출 증대에 노력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치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이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6차	⑥	10·26 사태로 정치, 사회가 혼란 상태에 빠지자 계엄령이 선포되고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일부 병력을 동원해 군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다.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는 광주에서 비롯된 5·18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때 시민들과 진압군 사이에서 충돌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도 살상되어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신군부 세력은 국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의 통치권을 장악했으며 7년 단임의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는 헌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민주 정의당을 조직해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강압적 통제에 반대하는 국민적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이는 1987년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7차	⑦	10·26 사태를 계기로 군대 내의 정치화된 집단인 1979년 12월 12일,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군권을 차지하였고, 나아가 정치적 실권도 장악하였다. 이에 군인들의 정권 장악 기도에 반대하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체제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 시위는 광주에서 절정을 이루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주화 운동과 기성 정치인을 억압하고 실권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들의 정권 장악에 유리하도록 헌법을 개정하였다. 즉, 국민의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두환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 사회의 구현과 복지 사회의 건설을 표방하였으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저항을 받게 되었다. 저항에 직면한 정부는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였으나, 민주화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시민들은 군부 독재와 비리를 규탄하며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이처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열망은 6월 민주 항쟁으로 승화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에 군부 세력이 굴복하여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전두환 정부에 대한 각 교과서의 서술내용을 분석해 보면 4차 교과서에서는 10·26 사태 후 국내정세를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이 제5차공화국의 긍정적인 면만을 서술하고 있다. 5차 교과서에서는 12·12 사태에 대해 서술하였고, ‘5·18 민주화 운동’이란 변화된 명칭으로 기술되었는데 이는 광주라는 한정된 지역에서만 발생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5·18을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5공화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

적인 면이 함께 서술되고 있지만 노태우 정부가 마지못해 정략적으로 진행했던 5공 청산 작업의 일부가 서술되었는데, 이는 전두환 정부안에서 태생된 노태우 정부의 한계성으로 인해 적극적인 비판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³⁵⁾ 6차 교과서에서는 이전 판과 달리 적극적인 비판을 하면서 전두환 정부 출범의 주체를 신군부 세력이라고 명시하면서 전두환 정부를 권위주의적 통치, 강압적인 통제를 저지른 정부로 비판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7차 교과서에서는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설명은 비교적 잘 서술되어 있지만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전체적인 전두환 정부의 구체적인 서술이 없어 무엇 때문에 국민들이 전두환 정부의 타도를 외치고, 투쟁하였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의 의의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길이 남을 정도로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인권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고취시켰음에도 교과서에는 이러한 의의 부분이 간략히 축소되거나 생략되어 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발현인가에 대한 이념적 측면이 부족하다.

3) 노태우 정권

전두환의 비호 아래 대통령이 된 노태우 정부는 교과서에서 어떻게 서술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8> 노태우 정부 내용 비교

교과과정	교과서	서술내용요약
5차	⑤	제5공화국의 정치 운영은 권위주의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35) 정연호, 위의 논문, 46쪽.

교육과정	교과서	서술내용 요약
		직선제 개헌이 여·야당 간의 합의로 이루어져 새로운 민주헌법이 공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6공화국은 민족자존·민주 화합·균형 발전·통일 번영을 내세우면서 지방 자치제 실시하였다. 제 24회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였고, 동구권의 국가 및 소련, 중국과 수교하는 등 북방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였다.
6차	⑥	노태우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는 민주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하였고, 또한 고도 경제 성장도 이룩해야 하는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오랜 지속과 민주화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 혼란으로 경제 성장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7차	⑦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작업이 추진되어 5년 단임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노태우 정부는 서울 올림픽 대회 개최 이후 북방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는 등 외교 관계를 확대하였다.

5차 교과서에서는 노태우 정부의 출범 근거를 6·29 선언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6·29 선언을 하게 되는 배경으로써 1987년 민주화 대투쟁에 대한 서술은 보이지 않고 단순히 6·29 선언을 정부 성립의 배경으로 서술하는 것은 곧 자신들이 민중들의 지지에 의해 성립되었음을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인식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노태우 정부시기에 개최된 서울 올림픽과 북방 외교의 성과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6차 교과서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노태우 정부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서술하고 있다. 노태우 정부의 출발을 6·29 민주화 선언으로 잡고 그 출범 과정은 5차 교과서와 동일하나 노태우 정부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권력 집단으로 민주화를 위해 애쓰기는 했으나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³⁶⁾ 7차 교과서에서는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외교

36) 정연호, 위의 논문, 48쪽.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설명 외에는 상세한 서술이 되어 있지 않아 비판적 입장인지, 객관적 입장인지를 확실히 할 수 없다.

IV. 결 론

이상에서 우리나라 국사 국정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내용을 1차에서부터 7차까지 비교하여 보았다. 교과서에서 현대사 교육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계의 연구를 적극 반영하여 서술하여야 하겠다. 현행과 같이 단일한 국정 교과서 체제내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고 획일화된 사고를 주입하기가 쉽다.³⁷⁾ 올바른 교과서 서술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편찬과정이 공개되어 여러 사람의 의견이 반영되어 자유롭게 서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역사만이 아니라 국제 정세와 연관시켜 세계사적 흐름속에서 우리의 현대사 좌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³⁸⁾ 국사 교과서 국정 체제는 정치 권력의 역사지식 통제, 다양한 세력 집단의 압박, 한국사 연구 풍토와 담론 체계의 반영 등 다양한 세력 집단의 기묘한 합작품이다. 그러한 여러 세력 집단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탄생한 1종 교과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이는 1종 국정 체제의 문제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국사 교과서는 아직도 국정 교과서의 한계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전통적인 교과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교과서의 여러 곳에서 학습자를 위한 배려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사 교과서의 한 종류를 구성하는 11~12학년의 『한국 근·현대사』가 국사 교과서 가운데는 처음으로 국정의 틀을 벗고 검인정제로 바뀐 것은 언제나 국정체제를 고수해온 국사 과목으로

37) 이명희, 「현대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교육』 55,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1990, 77쪽.

38) 정경희, 위의 논문, 32쪽.

볼 때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각종 연구활동이나 세미나에서 과거에는 성역처럼 여겨졌던 국사 교과서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일본의 교과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과서도 변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나오고 있다.³⁹⁾

이런 의미에서 대안교재의 출현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대안교재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작업은 국정 체제 하의 1종 국사 교과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즉 획일성, 무미건조함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작업이었다. 역사 교과서가 단 한 종류여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과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 다양한 해석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 아래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대안 교재는 국정을 대체하는 또 하나의 성전으로서의 지위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는 기존의 교과서를 대체하자는 것은 아니며, 유일한 대안도 아니다. 있을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일 따름이다.⁴⁰⁾

모든 교사는 저마다 나름의 역사관과 교육관을 갖고 있고, 교사마다 자신의 역사 교육관에 입각한 교과서 혹은 교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이미 현장 교사들 사이에 배움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실 수업 행위는 교사와 학생의 전인적 만남으로 교도의 창의성과 개성이 발휘되는 예술이다. 모든 교사는 자신의 고유한 수업교재를 만들고, 자신의 영혼을 담아 자신의 역사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주체적인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국사 교과서 국정 체제를 재고해야 하는 이유이다.⁴¹⁾

39) 정선영,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향」, 『교육연구논총』 제23권 3호, 2002, 17쪽.

40) 윤종배, 「개발 보고서」, 『역사교육』 48, 2000.

41) 양정현, 위의 논문, 31~32쪽.

교육에서는 교사만이 활동하는 공간이 아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교, 대외적으로는 가정, 사회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삶의 부분이다. 일방적 주입식 교육은 미래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고도 끌어낼 수 없다. 사회는 갈수록 다양한 비판적 사고를 요구한다. 계속해서 1종 제도를 고집한다면 학생들은 제한된 역사적 사고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며, 편협한 시야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검증된 국사교과서의 다양화와 대안교과서의 활용은 앞으로 우리 국사 교육에 있어서 첨가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라 하겠다. 이제 검인정 제도가 막 시작된 초기단계에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국사교육의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저 서

- 김창수, 「『국사 교과서 국수주의 편향을 경계한다 : 교과서 개편에 바란다』, 『광장』 162, 1987.
- 김한중, 「해방이후 국사교과서의 변천과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비평』 15, 역사비평사, 1991.
- 박성수 외, 「현대사의 올바른 인식과 역사교육」, 『자유공론』 326, 한국반공연맹 자유공론사, 1994.
- 서중석, 「국사교과서 현대사 서술, 문제 많다」, 『역사비평』 56호, 역사비평사, 2001.
- 서중석, 「현행 중·고교 국사교과서 현대사 부문 분석과 개선방향」, 『역사교육』 제79집, 역사교육연구회, 2001.
- 양정현, 「국사교과서 국정체제의 문제점과 대안모색 :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제44집, 2002.
- 윤종배, 「개발 보고서」, 『역사교육』 48, 2000.
- 윤종영, 「근·현대사 교육과 교육과정」, 『문교행정』 52, 문교부, 1986.
- 이명희, 「현대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새교육』 55,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1990.
- 이현희, 「국사교과서 국정체도의 검토」, 『역사교육』 91, 2004, 88쪽.
- 정선영,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정책의 현황 및 개선 방향」, 『교육연구논집』 제23권 3호, 2002.

정재정, 「국사교과서의 현대사분야 논쟁점」, 『근현대사강좌』 7, 한국현대사연구회, 1995.

정태현,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내용 분석」, 『사총』 45, 1996.

논 문

김영주, 『국정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5.

손숙, 『국사교육과정의 개편과 근현대사 서술 내용의 변화』,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송정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분석 연구 : 현대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신혜숙, 『중학교 사회과목 국정교과서에 나타난 지배이데올로기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이세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변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이창성,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정경희,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분석-제1차 교육과정~제6차 교육과정』,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정연호, 『국사 교과서의 국정 제도와 지배 이데올로기 분석-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현대사 서술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정혜운,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과 수업개선방안』,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최형숙,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추승희,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현대정치사 서술에 대한 연구 : 1종 국사 교과서와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단행본

강만길, 『분단 시대의 역사 인식』,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7..

김한중, 《역사교육의 이론과 방법》, 서울: 삼지원, 1997.

류승렬,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현대편, 숲, 2003.

민주한국혁명청사편찬위원회, 『민주한국혁명청사』, 한국군사혁명사편찬위원회, 『한국군사혁명사』 1(하), 1963.

박명림,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해방전후사의 인식』 6, 1990.

박태균, 『미소의 분할점령과 군정』, 한국역사입문 3, 풀빛, 1996.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의 기원』 하권, 청사, 1986.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1946」, 『해방 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6.

최봉대, 「한국전쟁의 기원과 그 성격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한국전쟁연

구』최장집편, 태암, 1990.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1980년대 한국사회와 민족민주
운동』 4, 풀빛, 1991.

ABSTRACT

Analysis of a Change in Contents of Modern-history Description for the Korean-history National Textbook of Middle and High School

- 1st~7th Curriculum -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Major in History Education

Jeong Hye-yeong

Our country's curriculum was revised totally 8 times, and there has been the revision of curriculum over totally 7 times so far in the face of excluding the curriculum, which was enacted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at had existed for 3 years from 1945, among them. When it comes to curriculum, the description was also chang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 contents are not accorded every period. In particular, a change in the contents of modern history is most serious, and this is derived from that a textbook has been used as a means to achieve the national goal or to publicize the righteousness of political power. Accordingly, it can be said to be natural to get larger in a critical voice against a national textbook and to be raised the assertion that a textbook needs to be conducted with an autonomous system other than a national system.

This study tried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power and the Korean-history education and examined how this is reflected in a textbook, by looking into how the Korean-history education was formed, and a change in Korean-history education during the military government after the Yushin (Revitalizing Reform) regime and since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zation. The contents of a textbook was briefly described, and it compared and analyzed with Korean-history national textbook for middle school because of having comprised a change in contents of Korean-history national textbook for high school from the 1st to the 6th textbook, and the optional subject by being reorganized into the authorization system as for 『Korea's contemporary and modern history』 of the 7th curriculum. The main contents of analysis comprise the part of modern history, which had most changes in contents, and it examined the Lee Seung-man dictatorship period, and the military-regime period of Park Jeong-hi, Jeon Du-hwan, and Noh Tae-u from the national division since liberation.

In order that the modern-history education can be rightly attained in a textbook, it needs to be described by positively reflecting a study of the academic world. Within the solely national-textbook system like the present, it is difficult to offer the opportunity of diverse thoughts to students and is subject to infusing the uniform thought. Recently, it is being appeared the consideration aiming at learners in several places of Korean-history textbook. Above all, in terms of what

『Korea's contemporary and modern history』 for 11~12 grades, which comprises one kind of Korean-history textbook was changed into the authorization system escaping from a national frame for the first time out of Korean-history textbooks, it can be said to be a tremendous change only with itself, given seeing the Korean-history subject that has always adhered to the national system.

In terms of education, it is not a space where only a teacher is active. The unilaterally cramming education cannot derive any thought from future students. Given insisting on the national system on and on, students cannot help but remain in the restrictive thought and cannot help securing narrow-minded vision. This is a reason for the necessity of converting into an autonomously publication system or even an authoriz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urrently Korean-history national textbook.